

## ‘예향 40년’ 예술과 전라도 사람들의 행복한 동행

고품격 문화예술잡지...예향에서 아시아문화도시 발돋움 견인  
‘예향’이 만난 사람들·표지화 등 독자와의 즐거운 대화 담아

호남을 대표하는 고품격 문화예술잡지인 광주일보 자매지 월간 ‘예향’이 창간 40주년을 맞았다.

〈관련기사 2, 3, 4면〉

1984년 10월, ‘전라도의 멋과 열을 지켜나갈 전라도 사람들의 잡지’를 표방하며 첫 발을 내딛은 ‘예향’은 ‘예술의 고향’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사는 전라도인들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민과 출향인, 예술인들에게 다양한 고향소식과 문화예술의 현장을 전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

무엇보다 낙후된 지역의 문화인프라와 콘텐츠의 중요성을 일깨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로 발돋움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특히 윤공희 대주교를 비롯해 임권택 감독, 철학자 김형석 교수 등 저명한 석학과 예술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는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줬다.

하지만 ‘예향’이 걸어온 40년의 세월에는 굴곡도 있었다. 지역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던 ‘예향’은 IMF 외환위기 직후인 2002년 2월 통권 209호를 끝으로 잠정 휴간에 들어갔다. IMF로 인한 장기적인 경제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부상, 종이출판의 쇠퇴까지 겹친 가슴 아픈 결정이었다.

그로부터 10년 후. 지난 2013년 4월, ‘예향’은 수많은 독자들의 부름에 11년 2개월만에 문화예술 매거진 ‘예향’으로 돌아왔다.

“‘예향’은 오랜 세월 변치 않고 졸졸 흐르는 석간수와 같은 마음으로 내게 남아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한 시기에 슬그머니 다가와 작은 캔디박스 하나를 살짝 놓고 지나갔을지나 인연의 향기가 오랫동안 깊은 것이다.”

곽재구 시인을 포함한 많은 문화예술인들과 지역



1984년 10월 창간호부터 2024년 10월까지 40년 동안 월간 ‘예향’을 장식한 표지는 한국 화단을 대표하는 거장들의 ‘작품’과 국내외의 역동적인 문화 현장을 소개해 왔다.

민들이 ‘예향’의 복간을 반겨주었다. 복간 이후 ‘예향’은 지역성과 국제성을 가미한 글로벌(Global+Local) 문화예술매거진으로 국내외의 다양한 문화소식과 트렌드를 반영하며 독자와 함께해 오고 있다.

또한 지난 2020년 10월, 지역 문화예술잡지로는 최초로 통권 300호를 돌파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으며 2021년부터 매년 (사)한국잡지협회가

선정하는 ‘우수콘텐츠잡지’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에 광주일보의 ‘예향’ 창간 40주년 특집을 담은 10월호 발간을 맞아 어려움을 극복하며 독자와 동행해 온 40년의 여정을 되짚어 본다. 실제로 ‘예향’은 40년 동안 매달 수많은 사회명사와 아티스트들을 만나 생생한 목소리를 독자들에게 전달했다. 인터뷰이들은 우직하게 한길을 걸어온 자신들의 삶과 예술세계를 꾸밈없이 들려줬다. 활자로 기록된

그들의 생생한 육성(肉聲)은 소중한 한국문화예술 아카이브(Archive·기록보관소)이기도 하다.

표지로 본 ‘예향’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고 40여 년 동안 ‘예향’이 만난 사회명사와 아티스트를 소개한다. 사실, 표지는 그 잡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얼굴과도 같다. 1984년 10월, ‘문화예술 종합 교양지’를 표방하며 첫 선을 보인 월간 ‘예향’ 표지는 남도출신 화가들의 그림으로 꾸며졌다. 창간호



표지를 장식한 오승운 화백의 ‘개선(凱旋)’부터 IMF 여파로 잠정 발행 중단했던 2002년 2월(통권 209호) 월아(月娥) 양계남 화백의 ‘달리는 말을 타다’에 이르기까지 모두 160여 명의 지역 화가들이 참여했다. 이후 ‘예향’

은 11년2개월 동안의 휴지를 거쳐 창사 61주년을 맞아 2013년 4월 문화예술 전문잡지로 새롭게 탄생했다. 표지 또한 회화와 사진 등을 활용한 세련되고 시각적인 디자인으로 변화를 시도했다.

이와함께 광주가 한국의 ‘예향(藝鄕)’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변모하는 40년의 시간도 되돌아본다. 예술의 고향 전라도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성장하기까지의 긴 여정은 항상 ‘예향’이 함께 했다. 전라도의 전통과 풍속, 역사를 다루면서 잊혀져가는 우리의 것을 지키고 기록했으며, 지역 출신 작가들을 발굴하고 독자들에게 예술인들의 작품활동을 소개했다.

한편, 광주일보에는 예향 창간 40주년을 자축하는 의미로 오는 22일 오후 6시 광주시 남구 임암동 복합문화공간 ‘어반브룩’에서 ‘40년의 여정-함께 걸어갈 길’ 기념전시회를 갖는다. 전시회에서는 고 오지호 화백 등 원로·중진 작가들의 표지화와 복간 이후 수준 높은 퀄리티로 시선을 끌었던 ‘예향’의 표지 작품과 함께 ‘예향’의 대표 콘텐츠인 ‘남도 오디세이 美路(美路·미로미로)’에 소개됐던 전남 22개 시·군의 대표 이미지를 만나볼 수 있다. 전시회에 이어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회원들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를 감상할 예정이다.

/이보람 기자 song@kwangju.co.kr

## 목포대·순천대 ‘통합 의대’ 설립 물꼬 트이나

김영록 전남지사, 의견 조율 중  
“통합 불발 땀 공모 통해 단수 추진”

김영록 전남지사가 목포대·순천대가 대학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통합의 물꼬가 트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남도가 전남 국립 의대 설립 대학의 정부 추천 시기를 11월 중순으로 늦추며 양 대학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고 있으며, 김 지사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목포대·순천대를 물밑 접촉하며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7일 오후 전남도청 기자회견에서 간담회를 갖고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의대가 양 지역의 화합을 도모하는 현실적으로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1도(道) 1 국립대학이 정부 방침이고 학령·아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국립대학은 통합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목포대, 순천대 양 대학도 통합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통합의 물꼬가 트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6학년도(의대 증원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생각해야 한다”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 전에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목포대와 순천대 총장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통합 의대가 안 되면 공모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일부에서는 공모를 통해 두 개의 의대를 추천하자고 주장하나 정부가 이를 받아 주지 않는다”고 전했다. 통합 의대가 불발될 경우 공모를 통해 단수(단수)의대를 정부에 추천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전남 광주시 민사회단체협의회가 내놓은 성명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전남도가 바라는 바와 근접한 것으로, (공항

이슈 해결에) 매우 의미가 있다”며 광주시가 언급한 ‘연말 시한’, 이른바 ‘B플랜’ 등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전남 입장에서 무안이 군공항을 받아야 하는 건 인정한다. 다만, 주민들로 하여금 환영할 만한 시설이 아니라면 대안 제시가 필요하고, 광주시가 진술하고 진지하게 주민들을 설득해 달라는 게 도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총망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쏟아져 쏟아지면 받는 광주·전남 상생카드 ▶8면

광주FC 허울, 신형 멀티플레이어로 뜬다 ▶18면

팔도 건축기행 - 강원도 횡성 풍수원 성당 ▶22면



내일 한글날 신문 쉽니다

### 창의의 땅 전남, 콘텐츠로 열어나가는 무한 가능성

# 전남콘텐츠페어

## 2024.10.09. (수) - 10.13. (일)

### 나주시 영산강 정원 일원

주최

주관

10/9(수)	10/10(목)	10/11(금)	10/12(토)	10/13(일)
전남 메타버스 한눈에 (보드게임, 퍼즐게임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 인조이커들에게 묻는다 (실매를 즐기는 법 / 인조이커플) 웹툰 라이브 드로잉쇼 (작가: 장혁진)	전남 콘텐츠 페어 개막식 게릴라 e-스포츠 대회 (철권 7 현장배틀) 전남 콘텐츠 미래를 담다 (무적핑크 외 3인 비전포럼)	게릴라 e-스포츠 대회 (로컬 게임 활동 게임대회) 콘텐츠가 있는 토크콘서트 (연사: URBAN BRO. NETWORK 최강웅 대표)	게릴라 e-스포츠 대회 (철권 7 현장배틀) 게임문화가족캠프 (게임으로 소통하는 가족음악관)	전라남도 대표 우수콘텐츠 상영회 (공모전 수상작) 게릴라 e-스포츠 대회 (철권 7 로컬 게임 활동 게임대회)
<b>상시운영</b>				
전남 콘텐츠 전시·체험존 운영(스토리존, 실감존, 메타버스존, 게임존) 캐릭터 코스프레 퍼레이드, 경상북도 교류 전시 운영, 콘텐츠 대학 홍보관 운영 체험 프로그램 운영(AI 그림 체험, AR 양궁체험 등)				